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주요 신문의 정치 평론 분석

이진로
영산대학교

Newspaper Analysis of Political Criticism during 18th Presidential Campaign in Korea

Lee, Jin-Ro
Yongsan University

초록

우리나라 18대 대통령 선거가 여야 주요 후보자의 치열한 선거 운동을 거쳐 2012년 12월 19일 실시됐다. 개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를 득표하여 당선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48.0% 득표)와의 득표율 차이는 3.6%다. 비교적 근소한 득표 차이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인품 정보를 제공한 주요 신문의 보도 즉 정치 평론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주요 신문의 선거 보도 내용의 문제점 등 정치 평론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신문의 선거 보도는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부정적 선거 보도 관행이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공약) 보도와 검증의 부족을 비롯해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 중심의 부도, 투표 직전 의혹에 대한 집중 보도로 유권자의 혼란과 정치적 염증 초래, 신문의 논조와 연관된 특정 후보자 편향 보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감정적 공세 보도(색깔론과 북풍몰이 보도), 후보자의 지지율에 초점을 맞춘 경마식 판세 보도, 지역감정 조장 보도 등이 그러한 사례다. 이밖에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제기된 일부 보수적 논조 신문의 공약 불이행 조장 기사는 새로운 사례에 해당한다. 후보자간 지지율과 득표율이 비교적 박빙인 상태에서 특정 후보자가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

와 복지 확대를 주장한데 대해 보수적 논조의 신문이 현실적 문제점의 발생을 이유로 들어 이행 유보와 연기를 제안했음은 향후 선거에서 무분별한 공약 남발과 그러한 공약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보수적 논조의 신문과 진보적 논조의 신문은 선거보도의 부정적 측면에서 모두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보수적 논조의 신문이 잘못된 선거 보도 행태를 상당한 정도로 지적받는데 비해 진보적 논조의 신문은 비교적 약한 수준의 지적에 그쳤고, 또한 자체 음부즈만의 활발한 운영 등을 통해 자기교정 노력을 기울인 점이 주목된다. 한편 보수적 논조의 신문에 해당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텔레비전의 종합편성채널 운영을 통해 유사한 논조가 방송에서 비슷하게 반복, 확산됐으므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 주제어 :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보도,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Abstract

Park Geun-Hye was elected as the 18th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Was there any influence of Korean nationwide newspapers? This paper studied political criticism of Korean nationwide newspapers during 18th presidential campaign in 2012. There are common negative problems among main conservative and liberal newspapers as follows: fewer news of campaign issue test, more candidate centered news compared to voter centered news, doubtful news without enough evidence, partial news and columns to candidate who has similar political views of each newspaper, news of exaggerating North Korean menace, horse-racing news of focusing candidates' supporting rate, news of inciting voters to local backgrounds and so on. However, major conservative newspapers with General Cable Television Channel Broadcasters such as JTBC, TV Chosun, MBN, and Channel A expanded conservative contents of political criticism favoring of conservative candidate. As a result, this paper implied that conservative political criticism of Korean nationwide newspapers could affect voters whom to choose.

□ Key words : Presidential Campaign, Election Journalism, Political Criticism. Newspaper, Vote

I. 문제의 제기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 평론 담론이 다양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의 정치 평론에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인터넷 토론 게시판, 블로그, 그리고 소셜미디어로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포함할 경우 미디어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정치 평론이 유권자의 정치 현실 인식과 후보자 평가 그리고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미디어 이용 현황과 관련해 신문이 차지하는 위상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신문의 정치 평론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2012년 신문의 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정기 구독률이 24.7%로서 1996년 69.3%, 2000년 59.8%, 2004년 48.3%, 2008년 36.8% 등에서 보듯이 추세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2012). 종이신문의 열독률 역시 2012년 40.9%로서 2002년 82.1%, 2004년 76.0%, 2006년 68.8%, 2008년 58.5%, 2010년 52.6% 등에서 보듯이 역시 추세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음(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2012)은 신문 미디어의 영향력이 1990년대와 크게 다르고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주요 신문의 정치 평론 역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신문 이용시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2년 1일 평균 신문 이용시간은 15.7분으로 1996년 43.5분, 2000년 35.1분, 2004년 34.3분, 2008년 24.0분 등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2012).

신문의 이용시간과 영향력 감소 추세와 달리 텔레비전은 상당한 이용시간과 영향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먼저 2012년도 전체 미디어(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이용시간 323.5 분과 뉴스와 기사 이용시간 110.5분 중에서 텔레비전의은 각각 175.8분(54.3%)과 55.3분(50.0%)으로 가장 주요한 미디어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2012). 방송으로 범위를 넓혀 뉴스의 신뢰도 측면을 비교하면 5.0 만점

중 지상과뉴스 3.76 보도전문채널 3.61, 종편뉴스 3.43, 라디오뉴스 3.41 등으로 모두 일간신문 3.37보다 높았다(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2012). 지상과뉴스의 시청률은 2012년 KBS 19.1%, MBC 6.6%, SBS 11.6%, 평균 13.0%로 각각 2004년 19.7%, 15.2%, 9.7%, 15.2% 등을 비롯해 2008년 19.1%, 10.1%, 10.5%, 13.3% 등으로 평균 시청률이 8년 전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하락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2012). 다음에 2012년도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복수응답 허용)에서 인터넷의 경우 PC와 같은 고정형이 103.1분,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형이 76.8분, 합계 179.9분 등에 이르고, 이 중에서 뉴스 이용시간과 해당 미디어 이용시간 중 뉴스 이용 시간의 비율은 각각 29.3분(28.4%), 25.2분(32.8%), 합계 54.5분(30.3%) 등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2012).

그러나 이처럼 신문의 가구당 정기 구독률, 종이신문의 열독률, 신문 이용시간 등의 감소 현상과 텔레비전과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 추세를 곧바로 신문의 영향력 하락과 나아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신문 정치 평론의 영향력 감소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종이 신문의 위상 저하에도 불구하고, 신문 콘텐츠로서 뉴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와 개별 신문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해 수용되고, 방송의 뉴스 시각에 영향을 주고, 2011년 말부터는 종합편성채널(종편채널)에 진입한 조선일보(조선)의 TV조선, 중앙일보(중앙)의 JTBC, 동아일보(동양)의 채널 A, 매일경제(매경)의 MBN 등을 통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따라 직접 텔레비전으로 진출하여 뉴스의 영향력 확산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낙선이란 결과는 신문의 정치 평론 구조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시각에서 18대 대선 기간 중 주요 신문의 정치 평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영향력의 내용과 행사 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글의 순서는 먼저 2장에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4장에서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신문의 정치 평론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적으로 신문 정치 평론의 영향력 행사 방식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하겠다.

II. 이론적 논의¹⁾

1. 선거와 미디어 연구

선거와 미디어에 관한 연구의 뿌리는 정치와 미디어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매스 미디어가 선거 포함해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 유지되도록 시민에게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기능과 사회의 문제점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환경감시기능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매스 미디어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병존한다(Brynin, & Newton, 2003, 59-60).

먼저 긍정적 시각의 논리는 미디어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 정치 뉴스를 제공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정치적 식견을 높이고, 교육하고, 투표와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다(Inglehart, 1990; Dalton, 1996, Newton 1999, Norris, 1996, 2000).

다음에 부정적 시각의 논리는 미디어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 보도를 흥미 위주의 오락적 측면에서 다루고(Postman, 1987; Dalghren 1995; Schudson, 1995; Franklin 1997), 갈등, 무능, 부패 및 스캔들과 기타 선정적인 내용을 강조하여 시민에게 정치적 염증을 초래한다는 것이다(Lang & Lang, 1968; Robinson, 1976; Edelman, 1988; Entman, 1989; Postman & Powers, 1992; Negrin 1994; Kerbel, 1995; Schulz, 1998). 또한 미디어는 정치인과 정당, 정치 시스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더욱 불신하게 하고,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서 책임감을 약화시킨다(Robinson, 1975; Iyengar, 1991; Patterson, 1994; Hallin, 1997; Putnam, 1995a, 1995b, 2000). 이와 함께 미디어는 정치적 소외, 냉소주의, 불신, 퇴행 등과 같은 현대

1) 이 부분은 이진로(2008, 2010, 2012 등)의 이론적 연구 부분을 수정, 보완, 재구성했음.

정치에서 지적되는 주요 문제점의 원인으로 간주된다(Crozier, Huntington, & Watanuki, 1975; Raney, 1983; Patterson, 1994; Blumler & Gurevitch, 1995; Ansolabehere & Iyenger, 1995; Fallows, 1997; Bennett, 2000; Norris, 2000). 이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투표율 저하 현상 역시 미디어의 부정적 역할로 지적된다(McChesney, 1999).

이처럼 정치와 미디어에 관한 해외 연구는 미디어가 유권자인 시민의 정치적 교육과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통해 선거 참여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따라 투표 활동 참여를 소홀히 하고, 투표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측면에 주목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국내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신문과 방송의 보도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인간적 품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하고 정치적 갈등과 대립 위주의 내용에 치중한 결과 유권자의 정치적 염증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정작 선거에서 필요한 후보자와 정당의 지식 부족, 정치적 무관심 증대와 투표율 저하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연구됐다(권혁남, 1997; 장호순, 2001; 이준웅, 2002; 양승찬, 2003; 이효성, 2003; 윤호진, 2007; 구교태, 2008; 이진로, 2010). 이러한 내용은 미디어가 정치, 특히 선거와 관련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본래의 기능인 정치 정보 제공과 환경 감시 기능에 충실하도록 변화시킬 필요성을 제기시킨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디어 중에서 신문의 정치 평론에 집중 조명하겠다.

2. 신문의 선거 보도

신문은 선거의 주요 미디어다. 선거와 미디어 관련 국내의 연구는 초기에 주로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다루었다. 그동안 총선보도 또는 대선보도의 사례를 분석한 선거보도의 주요 문제에 관한 일반론을 포함한 연구(권혁남, 1997, 2002a; 김무곤, 2002; 김영호, 2003; 백선기, 1997; 유재천, 2002; 이효성, 2003; 장호순, 2001; 박정의, 2002, 2003) 중에서 백선기(1997), 이효성(2003), 권혁남(2002b)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먼저 한국의 선거보도를 기호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백선기(1997)는 우리 신문의 선거보도 경향을 게임의 구조, 부정성의 구조, 편파성의 구조 등 세 가지 심층구조로 분석한다. 첫째, ‘게임의 구조’는 선거를 마치 스포츠 게임으로 바라보고, 흥미있는 경기나 시합을 취재하듯이 선거를 취재, 보도하는 것으로, 스포츠 게임에서 승패가 가장 중요하듯이 선거의 승리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심층구조를 말한다. 둘째, ‘부정성의 구조’는 선거를 정상적인 정치행위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정치행위로 간주하고, 선거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폭로의 대상이고, 가십성이 많고, 쉽게 타락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적 측면을 유난히 강조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보다는 부정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셋째, ‘편파성의 구조’는 여당의 입장에서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보도를 하려는 심층구조로 여당 입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선거 보도와 선거시기에 발생된 여러 관련 사안들을 여당에 유리하게 또는 야당에 불리하게 함으로써 여당을 돕는 편파보도를 가리킨다.

주로 신문을 중심으로 선거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백선기(1997)는 선거를 게임으로 보고, 부정적인 소재로 파악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와 민주주의의 나아가 정치 과정에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언론인의 자각과 개선에 의해 해결될 것을 함의한다.

다음에 선거보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한 이효성(2003, 231-238)은 15대 총선보도의 문제점으로 경마저널리즘의 문제를 비롯해 북한·안보 보도의 문제, 정부의 선심성 정책 보도의 문제, 불법·타락 선거운동 보도의 문제, 검찰 발표 보도의 문제 및 편파 보도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경마저널리즘의 문제는 언론이 각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자질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정확하지도 않은 의견조사결과나 각종 판세분석 보도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점에 최대의 관심을 보이면서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는 보도경향이다. 둘째로 북한·안보 보도의 문제는 선거철을 중심으로 북한과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현상이다. 셋째로, 정부의 선심성 정책 보도의 문제는 선거철에 정부가 여당 후보자를 돕기 위해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 보도에 대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에 나서는 현상이다. 넷째로, 불법·타

락 선거운동 보도의 문제는 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고, 투표율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낳는다. 다섯째로, 검찰 발표 보도의 문제는 15대 총선에서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리고,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하여 야당에게 타격을 가하는 언론의 당파적 보도태도이다. 끝으로 편파보도의 문제는 방송이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을 중심으로 시각과 분량 측면에서 매우 현저하게 유리하도록 다루어준 반면에 야당인 국민회의 측에는 적은 수의 뉴스를 짧게 다루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반대로 여당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야당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였음을 지적한다.

공중들이 정치와 선거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상황이 미디어에 의해 강화된다는 미디어 부정주의 시각(media malaise theory)에 주목한 권혁남(2002b)은 유권자들은 선거보도에 있어서 한편으로 불공정 보도 즉 보도의 편파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후보의 자질, 정책이나 이슈 등 본질적인 정보보다는 피상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선거보도의 문제점으로 열한 가지를 지적한다. 이들 내용은 ①선거의 과열, 불법을 조장, ②가십과 스케치 기사의 강조, ③전략적 대결 보도, ④편파보도, ⑤경마식보도, ⑥이슈 보도에 인색, ⑦정당 수뇌부 중심의 선거보도, ⑧부정주의 보도, ⑨지역감정 조장, ⑩선거여론 조사의 부정확성, ⑪TV토론 보도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총선 선거 보도 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언론의 문제점을 도출한 것인데, 상당 부분의 내용은 다른 많은 선거보도 연구(방송위원회, 1995; 김택환, 1997; 백선기, 1997; 2000; 김서중, 2002; 장호순, 2002; 이준웅, 2002; 이구현, 2003)에서 제시되었던 내용과 공통되는 내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마다 똑같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들 연구는 그 배경이 되었던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적 구조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현상의 출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인 보도 관행이 일부 개선되기도 했고,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신문의 선거 보도 영향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언론의 편파적 보도가 완화되었고, 남북관계가 교류와 평화를 지향할 경우에도 북한·안보 보도의 영향이 크게 줄어든 적도 있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지향에 따라 검찰 발표 보도의 문제도 상당 부분 약화되었고, 지역감정 조장 역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다시 언론의 부정적 선거 보도 관행은 재현되었고, 보수적 논조의 신문과 진보적 논조의 신문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주관적 정치 평론은 물론 객관적 사실 인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언론 내부의 갈등에 따른 선거 보도의 공정성 약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신문은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미디어로서 해당 정치 평론 콘텐츠는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로서 직접 유권자에게 그리고 방송과 SNS의 논조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여론 형성과 관련해 주요 신문으로 보수적 논조의 조선, 중앙, 동아 등 3개지를 그리고 진보적 논조의 경향과 한겨레 등 2개지를 각각 들 수 있다. 이들 주요 신문의 정치 평론은 뉴스와 더불어 사실과 칼럼 등의 형식으로 독자인 유권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개 신문의 뉴스, 사실, 칼럼 중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주요 기사를 선정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고, 신문의 선거 보도를 다룬 연구, 논평 문헌과 미디어 전문 신문과 일반 신문의 선거보도에 대한 기사 등을 살펴보고,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신문의 정치 평론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 주요 신문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보도의 특성은 무엇인가?
- 둘째, 우리나라 주요 보수적 논조 신문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 평론의 특성은 무엇인가?
- 셋째, 우리나라 주요 진보적 논조 신문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 평론의 특성은 무엇인가?

각 연구문제별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문제인 주요 신문의 대통령 선거 보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이루어진 내용분석 연구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해당 연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재분석을 실시하겠다. 둘째 연구문제인 주요 보수적 논조 신문의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 평론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에 시민단체 모니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또한 신문과 텔레비전의 여론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보수적 논조의 신문과 중편 채널이 형성하는 여론 영향력이 진보적 논조의 신문이 형성하는 여론 영향력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겠다. 셋째 연구문제인 주요 진보적 논조 신문의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 평론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향신문의 음부즈만 칼럼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Ⅳ.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주요 신문의 정치 평론 분석

1. 양적 분석 자료를 통해 본 주요 신문 대통령 선거 보도의 특징

선거 직후 신문의 대통령 선거 보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비교적 객관적 시각의 학문적 입장에서 대선보도를 분석한 연구(정낙원, 2013)를 통해 주요 특징을 알아보겠다. 이 연구는 대선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일간지로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등 3개 신문의 대선기간 중(2012년 12월 3일 - 18일) 선거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전반적 보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정책보도의 비율이 높았고, 정책을 심층 분석, 비교한 기획과 연재 기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선거를 흥미의 대상으로 이끌고 정책 보다는 감정적 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경마식 보도가 여전히 많았고,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할 수 있는 의혹과 구설수에 대한 보도 비율이 높았고, 신문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한 후보자나 정책적 입장에 대한 보도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객관성, 중립성, 균형성, 정확성 등 중요한 언론 보도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정낙원, 2013: 32).

선거에서 언론은 후보자들이 차별적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과 공약의 실효성을 검증하며,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만 부각시키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당면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도록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며, 여러 계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모호하게 입장을 명하는 전략을 쓰는 통에 언론이 선거에서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었다.

분석 자료의 주요 내용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후보자별 기사 건수, 보도내용 주제별 분포, 세부 이슈별 분류, 헤드라인 분석 등의 순으로 정낙원(2013)의 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특징을 필자의 입장에서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별 기사 건수 분류 7 항목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건수는 186건 중에서 박근혜 24건(12.9%), 문재인 30건(16.1%), 앞의 두 후보(박근혜와 문재인)를 함께 다룬 기사 78건(41.9%), 안철수 19건(10.2%), 이정희 13건(6.9%), 군소후보 0건, 후보 없음 22건(11.8%) 등에서 보듯이 이정희 후보를 제외한 군소후보에 대한 조명을 외면했고, 이정희 후보를 다른 신문보다 많이 다루었으나 비호의적 내용이므로 비판적 시각을 다루는 소재로 활용됐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의 보도 건수는 201건 중에서 박근혜 56건(27.8%), 문재인 35건(17.4%), 앞의 두 후보(박근혜와 문재인)를 함께 다룬 기사 57건(28.3%), 안철수 27건(13.4%), 이정희 6건(2.9%), 군소후보 2건(1.0), 후보 없음 18건(8.9%) 등에서 보듯이 박근혜 후보를 다소 많이 다루었지만 역시 비호의적 비판적 보도와 연관됐다.

둘째, 보도 내용 주제별 분포 10개 항목에서 조선일보는 정책 20건(10.7%), 지지율과 판세 26건(13.9%), 토론회 25건(13.4%), 의혹과 구설수 29건(14.4%), 문재인과 안철수 공조 21건(10.4%), 후보지지 17건(9.1%), 선거유세 6건(3.2%), 기타 13건(6.4%), 선거전략 16건(7.9%), 후보자질 13건(6.4%) 등으로 나타났듯이 정책을 비롯해 토론회, 선거 유세, 선거 전략, 후보자질 등과 같이 유권자에게 필요한 후보자와 정책에 관련된 보도 내용이 60건(32.2%)으로 1/3에 가까운 것은 긍정적이지만 흥미 위주나 또는 불신을 조장

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다분한 지지율과 판세, 의혹과 구설수, 후보 지지 등이 72건(38.7%)에 이르는 점은 기존 선거보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겨레신문은 정책 31건(15.4%), 지지율과 판세 34건(16.9%), 토론회 21건(10.4%), 의혹과 구설수 32건(15.9%), 문재인과 안철수 공조 27건(13.4%), 후보지지 10건(4.9%), 선거유세 13건(6.4%), 기타 9건(4.4%), 선거전략 12건(5.9%), 후보자질 12건(5.9%) 등으로 나타났는데 정책을 비롯해 토론회, 선거 유세, 선거 전략, 후보자질 등과 같이 유권자에게 필요한 후보자와 정책에 관련된 보도 내용이 89건(49.3%)으로 1/2에 가까울 정도로 조선일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흥미 위주나 또는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다분한 지지율과 판세, 의혹과 구설수, 후보 지지 등이 74건(36.8%)에 이르는 점은 조선일보에 비해 약간 낮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역시 기존 선거보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세부 이슈별 분류의 16개 항목 중에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두 신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슈로는 북한외교(조선일보 9건 4.8%, 한겨레신문 4건 2.0%)를 비롯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조선일보 21건 11.3%, 한겨레신문 14건 6.9%), 특정인물의 특정 후보 지지(조선일보 18건 9.7%, 한겨레신문 11건 5.5%) 등이고, 이들을 합계하면 조선일보 48건 25.8%, 한겨레신문 29건 13.4%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서 민주당 측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을 중심으로 조명하고, 북한외교 정책의 경우 보수적 대결 입장을 강조하고, 호남권 구 정치인이나 또는 과거 민주화 활동을 한 재야인사와 같은 특정 인물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강조한 경우가 다소 많은 점을 고려하면 주제 선정 과정에서 대체로 보수적 입장을 내세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우호적인 기사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에 비해 관심이 높은 이슈로는 경제민주화(조선일보 2건 1.1%, 한겨레신문 6건 3.0%)를 비롯해 검찰개혁(조선일보 0건 0.0%, 한겨레신문 6건 3.0%), SNS 불법 선거 의혹(조선일보 3건 1.6%, 한겨레신문 14건 6.9%), 판세보도(조선일보 24건 12.9%, 한겨레신문 36건 17.9%), 후보자 자질, 능력, 도덕성(조선일보 12건 6.5%, 한겨레신문 19건 9.5%) 등이고, 이들을 합계하

면 조선일보 41건 22.0%, 한겨레신문 81건 40.3%로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과 같이 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선거 운동을 중단시키고, 후보자의 역량과 품성에 주목할 경우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지율 변화 추이를 전달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유세 구도를 문재인 후보가 역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주제 선정 과정에서 대체로 문재인 후보에 각각 우호적인 기사로 볼 수 있다.

넷째, 헤드라인 분석에서 24개 항목에 따라 분류한 내용 중에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두 신문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를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상호 공격을 보여주고, 지지율을 수평적으로 제시한 제목을 제외한 채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 편향적인 제목을 중심으로 비교하겠다. 먼저 박근혜 지지율과 전략, 정책에 주목하고 문재인과 안철수, 이정희 등에게 부정적이고, 야당 내에서 문재인을 공격하고, 문재인과 안철수 공조 연대의 갈등 국면 보도에 주목한 제목을 합산해 보면 조선일보 50건 26.9%, 한겨레신문 20건 10.0% 등으로 조선일보가 다분히 제목을 통해 박근혜 후보에 우호적, 긍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에 문재인 지지율과 전략, 정책에 주목하고 박근혜에게 부정적이고, 여당 내에서 박근혜를 공격하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공조 연대 상황을 조명하는 제목을 합산해 보면 조선일보 19건 10.2%, 한겨레신문 78건 38.8% 등으로 한겨레신문이 확연하게 제목을 통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우호적, 긍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을 양적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두 신문 보도 각각의 신문이 표방하는 보수적, 진보적 입장에 맞춰 보수적 입장을 표명한 박근혜 후보와 진보적 입장을 표명한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우호적인 보도 경향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경우 보수적 입장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혜택 확대 등 상당 부분 진보적 정책을 표방하여 두 후보자 사이의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상반된 보도 경향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정치 권력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조가 굳건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수적 논조 신문이 전개한 정치 평론의 문제점과 영향

1) 시민단체가 본 보수적 논조 신문이 전개한 정치 평론의 문제점

보수적 논조 신문의 정치 평론을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중 모니터한 ‘2012 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이하 민언련 모니터단)의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장악된 방송과 조중동 등 수구신문이 선거보도를 빙자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부당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신태섭, 2013)고 주장한다. 특히 선거결과 당락을 가른 득표 수의 차이가 비교적 작았던 박빙의 선거이므로 이들 매체들의 심각한 편파, 왜곡 보도가 사실일 경우 선거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신태섭, 2013).

이들 매체들은 대선 후보의 자질과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가 아닌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부추기거나, 근거 없는 흑색선전, 색깔론과 NLL북풍몰이, 야권후보 단일화 흠집내기, 구태의연한 지역주의 조장, 경제민주화 의제 등 유권자 운동 왜곡 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 네거티브 공세 중단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네거티브를 확대재생산하는 보도를 쏟아냈으며, 후보들에게 정책선거를 요구하지만 했을 뿐 이들 언론들은 후보 검증이나 정책보도에는 거의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야 후보에 대한 균형 있고 공정한 보도는 안중에 없었다.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사안은 부풀려 띄우고 불리한 사안은 축소, 누락시키거나 몰타기하며 여당 후보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 연출에 열중했다. 반면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헐 뜯고 폄훼했다.(신태섭, 2013: 31)

민언련 모니터단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5개 일간지를 모니터한 결과 이중잣대를 비롯해 은폐와 침묵, 의제 왜곡 및 보도, 분열 조장, 몰타기, 지역주의 조장, 네거티브 띄우기, 검증포기, 색깔론과 북풍몰이, 공약 불이행 중용 등으로 편파와 왜곡보도 사례를 정리했고, 각 사안마다 최악의 기사를 선정한 결과 조선일보 5건, 중앙일보 1건, 동아일보 4건

등 모두 10건을 대선 최악의 보도 사례로 선정했는데(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종жат대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경우 보수후보와 진보후보에 적용한 사례로 사실 <보수 분열로 또 교육감 선택권 박탈당한 서울시민들>(조선일보 2012.11.27)이 지적됐다. 이 사실의 주요 내용은 2012년 서울시 교육감 재보선에서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 보수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해버린 셈이라고 말한 반면에 다른 보도에서는 야권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구태라고 비난했듯이(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39) 단일화에 대한 평가가 보수와 진보냐에 따라 일관되지 못했다.

둘째, 은폐와 침묵에 관한 내용으로 조선일보가 2012년 12월 4일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화제가 된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질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한 6억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보도한 내용이 담긴 <박, “퍼주기 평화는 진짜 평화 아니다” 문 “노정부때는 남북간 충돌 없었다”>(조선일보, 2012.12.5, 1면)라는 기사를 사례로 제시했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39-40).

셋째, 의제 왜곡 및 호도에 관한 내용으로 조선일보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기사 <박문 경제정책 15개 따져보니… 박 10개, 문 7개 MB정부와 유사>(조선일보, 2012.11.16, 3면)를 보도하면서 박 후보가 2012년 11월 16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 도입 등 김종인 위원장이 내놓은 핵심 공약을 배제해 ‘가짜 경제 민주화’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경제정책 상당 수가 MB정부와 유사하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의제를 호도한 사례로 지적됐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0).

넷째, 분열조장은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분열과 갈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했는데 <“호남 안지지자에 ‘배신자’ 협박…安 양보론 문자 대량살포”>(조선일보, 2012.11.15, 2면) 기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0-41).

다섯째, 몰타기 기사는 다른 수준의 문제를 같은 수준으로 틀짓기하는 방식인데, <정동영 “꼰대 투표” 김무성 “중간층 투표 포기하게”>(동아일보, 2012.12.17, 2면) 기사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1).

여섯째, 지역주의 조장 보도는 영호남 대결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제목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박근혜의 단일화 반격 호남 총리 카드 급부상>(중앙일보, 2012.11.13, 1면)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공동정권을 형성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이 부산과 경남 출신이 된다는 내용으로 지역주의를 부각시켰고, 반면에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호남 총리 기용에 성공할 경우 당평노선을 강조하여 야권의 특정 지역 독주 이미지와 대비될 것이라는 해석을 곁들였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1).

일곱째, 네거티브 띄우기 보도는 부정적인 소재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특정 후보에게 의혹스런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 <‘NLL 비밀’ 이제 여야 합의로 국민 앞에 공개하라>(동아일보, 2012.10.31)가 해당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의 근거가 되는 ‘남-북 비밀 단독 회담’ 자체가 없으므로 비밀대화록과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새누리당도 확인했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비밀회담을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여전히 비밀 단독 회담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사례가 그러한 실례로 지적됐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2).

여덟째, 검증포기 보도는 입증이 필요한 문제점의 핵심을 외면한 채, 부차적인 내용에 주목하면서 사실 규명과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사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스타일’ 과시인가>(동아일보, 2012.12.4)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2). 이 사실의 요지는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노트북과 컴퓨터를 압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으로 감금한 것으로 보도

하면서 이슈의 핵심을 왜곡보도한 사례로 언급됐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2).

아홉째, 색깔론과 북풍몰이 기사는 선거에서 제기된 특정 후보의 북한 관련 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면서 유권자의 적대적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설 <연평도 2년 전 그날을 잊었는가>(동아일보, 2012,11,22)에서 나타난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3). 이 사실에서 동아일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대북정책을 평화를 구걸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국민은 어떤 후보가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연관시켰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3).

열째, 공약 불이행 조장 기사는 당선된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약속한 내용의 이해를 만류하는 내용으로 사설 <박근혜 당선인, 겸허하게 온 국민 껴안는 걸로 시작하라>(조선일보, 2012.12.20)에서 볼 수 있는데, 당선 직후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공약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선거공약 중에서 당장 지키지 않아도 될 국정공약을 다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2012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2013: 43).

이상에서 살펴본 열 가지 편파왜곡보도 사례는 비록 보수적 논조의 신문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의해서 제기됐지만, 그동안 언론학자들이 지적해온 언론 선거보도의 전형적인 문제점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대표적으로 지적된 기사와 사실 외에도 정도는 다르지만 상당수의 신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2) 보수적 논조 신문이 전개한 정치 평론의 영향

보수적 논조의 신문에 해당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종합일간지(또는 매경을 포함한 4개 종편진출 신문으로 범주화하는 경우도 있음)의 경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반대 측 입장에서 진보적 논조를 표방하고, 주요 야당인 민주통

합당에 우호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향신문(경향)과 한겨레신문(한겨레)과 영향력 등을 수치로 비교할 경우 보수적 논조의 신문이 여론 형성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보수적 4개 신문이 함께 운영하는 종편 채널의 여론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보수적 논조의 신문이 제시하는 정치 평론의 여론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점이 최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여론 영향력 분포를 수치로 제시한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윤석민, 2013). 즉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중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 3개 신문과 매경이 신문 분야에서 차지하는 매체 영향력은 각각 23.7%, 17.9%, 16.0%, 6.8% 등으로 합계 64.4%로 2/3에 가깝고, 이에 비해 경향과 한겨레는 각각 5.9%와 5.4%로서 11.3%에 불과하다. 신문의 여론 영향력에서 여론을 정치 평론으로 간주한다면, 신문 정치 평론의 양적 구조는 보수 5.7 대 진보 1.0과 같이 일방적으로 보수적 정치 평론이 우세한 구조다.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 분야의 매체 영향력 측면에서 이들 3개 신문과 매경이 진출한 종편채널의 여론 영향력은 채널 A 3.1%, TV조선 2.0%, JTBC 1.2%, 매경 4.7% 등으로 11.0%에 이르는데 다른 신문의 영향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텔레비전 정치 평론의 양적 구조는 보수 11.0 대 진보 0과 같이 압도적으로 보수적 정치 평론이 우세한 구조다.

이처럼 보수적 논조의 신문에 해당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종편 운영을 통해 보수적 논조의 정치 평론을 유권자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관련 조사자료 분석 결과와 함께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보도(고정미와 홍현진, 2013.4.22)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13년 1월 24일, 25일 양일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종편의 대선 영향력을 지역별, 연령별, 학력·소득별, 직업별, 이념 성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종편 방송이 대선 후보 결정에 도움 되었다’는 응답은 34.8%로, ‘도움 안 됐다(30.1%)’는 의견보다 우세했고, ‘종편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4.7%, 모름·무응답은 0.5%로 나타났다. 또한 종편을 시청한 응답자 가운데는 ‘도움 되었다(53.2%)’는 의견이 ‘도움 안 됐다(46%)’는 의견보다 7.2%p 많은 점에서 종편 시청자의

절반 이상이 대선후보 결정 과정에서 종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종편 방송이 대선후보 결정에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 44.8%. 대구·경북이 44.7%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50~60%, 대구·경북에서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점에서 외견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고정미와 홍현진, 2013.4.22). 연령별로 보면, 5060이 종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5060 종편 시청비율은 75.2%에 달했고, 50~59세는 42.5%, 60세 이상은 44.4%가 ‘종편이 대선후보 결정에 도움 되었다’고 답했는데 지난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50대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62.5%, 60대 이상은 72.3%로 나타난 점에서 외견상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고정미와 홍현진, 2013.4.22).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블루칼라 주부층이 종편의 영향을 더 받았는데 자영업자 40.7%, 블루칼라 40.8%, 무직자 42.8%, 주부 37.8%가 ‘종편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적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직업군으로 제시됐고,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45.4%가 ‘종편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고, 종합적으로 보고서는 대선 기간 지속적인 종편의 중계방송식 대선 뉴스는 상대적으로 자기결정력이 낮은 저학력층, 블루칼라, 주부, 고령층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종편 영향력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고정미와 홍현진, 2013.4.22).

이상에서 보수적 논조의 신문은 진보적 논조의 신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발행부수와 가구당 구독률, 열독률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정치 평론을 통해 여론 형성과 후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 보수적 논조의 신문이 운영하는 종편 채널의 정치 평론과 시너지 효과를 산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경향신문 음부즈만의 칼럼을 통해 본 진보적 논조 신문이 전개한 정치 평론의 문제점

진보적 논조 신문인 경향신문의 정치 평론을 소속 음부즈만 칼럼 자료를 통

해 알아볼 수 있다. 이 칼럼은 주로 신문방송학교수 또는 대학생이 필자인 음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신문의 내용을 숙독하고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경향신문의 2012년 10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선거보도 관련 ‘음부즈만’ 칼럼 10편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Table. 경향신문 2012년 대선 관련 보도에 관한 음부즈만 칼럼 목록
(필자, 제목, 일자 순)

김춘식. “후보자 입 의존 ‘인용 저널리즘’ 그만”. 2012. 10. 22.
김춘식. “유권자 ‘정치 식견’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와 정책 분석·해설 기사 생산을”. 2012. 11. 26.
민영. “‘시민 역량’ 살찌우는 선거보도가 필요하다”. 2012. 11. 5.
민영. “언론, 대화와 치유의 매개체 되길”. 2012. 12. 24.
윤송이. “‘노동 없는 대선’ 기획, 해법 제시 미흡”. 2012. 11. 19.
윤송이. “‘혼탁 선거’ 보도 냉정한 시선 필요”. 2012. 12. 17.
정일권. “‘투표율 높이기’ 구체적 제안”. 2012. 11. 12.
정일권. “추론 말고 근거 확보 뒤에 보도를”. 2012. 12. 10.
한동섭. “대선 후보 정책 심도 있게 검증해야”. 2012. 10. 29.
한동섭. “안철수보다 지지자들 요구에 초점”. 2012. 12. 3.

경향신문의 대통령 선거 기간 보도에 대한 평가는 음부즈만 민영(2012.12.24)이 지적했듯이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한데,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을 모아서 13대 의제로 설정하고 각 이슈별로 시민 집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정책적 요구를 수렴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구체성, 개혁성, 적합성 측면에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증을 하고자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분석대상인 경향신문 음부즈만 칼럼 10건의 제목을 통해 볼 때, 후보자 중심의 보도를 비판하고(김춘식, 2012a) 유권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지적하는 내용(한동섭, 2012b)을 비롯해

선거에 대한 부정적 보도 태도를 지양하고(윤송이, 2012a), 추론 보도가 아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정일권, 2012b), 검증된 정책보도를 통해 유권자를 숙지된 시민으로 육성하고(김춘식, 2012b), 투표율을 높이는 보도를 지향할 것(정일권, 2012a)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통적으로 비판받아온 신문 선거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로부터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 경향신문 대선 보도의 문제점은 후보자 중심 보도와 유권자 역할 축소,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의혹 제기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과 투표율 저하 우려, 검증이 미흡한 정책 보도, 그리고 편향적 보도를 경계하고 공정한 균형보도의 확립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지적됐다. 첫째, 후보자 중심보도는 후보자의 발언에 의존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를 소홀히 취급하는 보도 태도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관련 정치현실을 조명한 기사도 거의 없었다. 유권자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투표시간 연장)과 환경문제(15일)에 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칼럼(2건)이 전부였다. 칼럼은 기고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의제설정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사 차원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저해하는 환경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논의를 촉진하고, 미래의 한국사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슈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김춘식, 2012.10.22.)

일반적으로 언론이 유권자의 관심 의제를 설정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요즘 언론의 의제는 후보의 의제일 가능성이 높다. 후보와 캠프는 언론을 모니터링해서 여론을 판단하고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의제에 공명하는 공약이나 정책을 전략적으로 제안한다.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후보의 입이나 캠프의 발표에 의존해 선거 뉴스를 생산하는 출입처 관행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은 후보가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강연회, 저서, 언론보도에 나타난 후보의 발언,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법안별 투표 의사결정 전력, 캠프에 합류한 정치인들의 정책 노선, 과거 유사한 법률에 대한 소속 정당의 입장 등을 토대로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심도 있는 검증 보도가 필요하다.(김춘식, 2012.11.26)

둘째, 선거에서 각종 의혹 제기는 자주 등장하는 기사 형태다. 하지만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의혹 제기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투표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관계자의 주장과 해명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역시 ‘국정원 개입 의혹’, ‘댓글 알바’ 등의 사건이 터져 나온 이후, 양측의 공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 하지만 양쪽의 공방을 중계하듯 전하는 모습은 다른 언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15일자 2면에 실린 기사 <박·문 초집전 판세에 막판 네거티브 공방>에서 양측 관계자의 공방 내용을 전했다. 같은 날 1면 하단 기사 <박근혜 “흑색선전과 전면전”… 댓글알바는 언급 안 해, 문재인 “국정원 정치 정보 수집 기능 폐지” 개혁안 발표>에서 박근혜 후보의 흑색선전 전면전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반박입장을 다뤘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내용으로 읽히지 않았다. 후보 당사자가 아니라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는 점에서 내용 자체는 달랐다. 하지만 양측의 날선 공세가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최종적인 판단은 기사를 읽는 유권자의 몫이지만 말이다. …대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세는 그칠 것 같지 않다. 후보 진영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중요지만, 혼탁해지고 있는 선거판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다 냉정한 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윤송이, 2012. 12.17)

짧게는 지난 몇 주, 길게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대통령 선거 보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진행돼야겠지만,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각 후보의 유세 활동과 네거티브 공방이 지면을 장악한 것은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다. 선거일 바로 직전인 17일과 18일 모두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1면을 차지했고(<“국정원 댓글 흔적 없어” 토론회 직후 기습 발표>, <국정원 직원 ID 40개 스마트폰 수사 안 했다>), 3차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회를 단순 중계하거나 전략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들(<문 “불법 선거사무실 인정하나” 박 “수

사하고 있는 것">, <화끈해진 1대1 양자토론>)이 다수 게재되었다. 선거일을 앞두고 2012년 선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유권자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 사항들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세심한 지면 구성이 필요했으나, 여러 모로 미흡했다. (민영, 2012.12.24)

셋째, 정책보도는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사 유형이다. 유권자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충분한 정책 분석기사의 도움으로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숙지하고, 실행가능성을 선별할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한 주 동안 경향신문의 대통령선거 보도를 읽고 매우 실망했다. 가장 중요한 의제를 전하는 1면에서 대통령선거 관련 기사를 찾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다. 대선과 직접 관련된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15일)과 박근혜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한 검찰의 반발(18일)을 전한 게 전부였다.

...공약을 다룬 기사의 수는 적었고 내용은 빈약했다. 여당·야당·무소속 후보가 내건 ‘경제민주화’ 정책은 칼럼(18일)과 사설(15·19일)에서 다루어졌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분야 멘토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기자회 정례포럼 발표내용(18일)을 요약 정리한 기사가 그나마 눈에 띄었을 뿐이다. (김춘식, 2012.10.22)

선거보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후보들의 정책 검증이다. 그런데 이를 언론이 주도하기보다는 상대후보들이 주도하거나 독자들에게 덩그러니 맡겨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전자의 경우 경쟁하는 후보와 참모들의 입을 쫓게 되어 정책 검증이 정략대결로 변질할 우려가 있고, 후자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은 내용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경향신문 또한 이 같은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 정책을 분석적으로 검증하지 못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 후보자들의 정책이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캠프에서는 설명했으나 취재과정에서 일부만을 요약해서 발생한 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앞의 경우도 보완취재를 통해 정책의 구체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숙의(熟識)민주주의, 즉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근거를 갖고 충분히 논의하고 상대방의 이유 있는 비판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민주적 과정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는다. 공정한 언론의 심도 있는 정책 검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한동섭, 2012.10.29)

선거 보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충분한 정보와 숙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으로서 독자가 그의 투표권을 최선의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사 선택과 작성 과정에서 ‘식견을 갖춘 시민’으로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참여하는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주 동안 경향신문의 선거 보도는 여러 측면에서 아쉬움을 낳았다...

뉴스는 ‘시민성’을 배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양분이다. 뉴스를 읽음으로써 시민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는 시민에게 있어 중요한 학습과 참여의 기회이다. 때문에 독자를 구경꾼에 머물게 하는 보도, 사실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는 보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해당 이슈가 시민들의 삶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때 언론은 독자를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 내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시민의 역량을 튼튼히 키울 수 있는 선거 보도를 기대해 본다.(민영, 2012.11.5)

민주주의 언론은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식견 있는 유권자’를 양성할 공적 책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식견 있는 유권자들 간의 활발한 정치 대화는 언론, 특히 신문이 보도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지금과 같은 지지를 중심의 여론조사 혹은 판세분석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고, 정치 대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과거의 경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한 주목, 주변 사람의 의견 탐색 및 평가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권자가 필요한 이슈 및 정책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뉴스를 생산해야 한다. 유권자는 정치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할 때 비로소 정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김춘식, 2012.11.26)

언론에서 시선은 매우 중요하다. 관점에 따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보도의 문제 대부분은 국민을 선거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관객이자 설득해야 할 객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선거를 정치세력들의 경주로 이해하거나 진영논리로 사고하면 선거의 주체를 후보들과 정치세력들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선거의 본질은 국민이 주권행사를 위해 정치적 대리인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선거의 주체는 국민이며 후보는 선택받는 객체인 것이다. 주체를 객체로 전도한 시선으로는 사안의 본질과 근원, 그리고 대안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와 관련한 경향신문의 보도에도 국민을 객체화하는 시선이 일정수준 존재한다. 안 후보가 사퇴하자 경향을 비롯한 언론의 보도는 그의 결정이 향후 대선레이스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전략적 논의에 집중됐다. 이러한 동안 안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지면으로부터 소외되어 갔다. (한동섭, 2012.12.3)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그동안 이런 공약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짚어보고 그 허점을 지적했는지 의문이다. 준비 정도와 관계없이 그런 복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지만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이라면 불과 몇 달 후 이런 복지정책을 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실시했냐고 또다시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일권, 2012.12.10)

넷째, 선거보도에서 특정 신문의 논조와 유사한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신문 정보의 신뢰성 상실에 따라 정치 회의주의와 불가지론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경계돼야 한다.

정책공약을 다룬 기사도 단순히 후보자 캠프에서 설명한 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소개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정책공약에 대한 분석, 즉 비용대비 기대효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 사회 구성원별 손익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 어려울 경우는 유사 사안에 대한 후보자들 간 공약의 차이를 비교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런 비교 기사의 경우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적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일권, 2012.11,12)

오천대 진보적 논조를 표방하는 경향신문의 선거 보도에 나타난 정치 평론을 음부즈만을 통해 본 결과 경향신문의 긍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논조의 신문에 비해 매우 약한 정도일지라도 일정 부분 우리나라 선거보도의 고질적 관행과 문제점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적 논조 신문의 경우 스스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기 위해 음부즈만이 비교적 솔직한 비판을 전개한 것은 자기교정의 희망을 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V. 결론 및 논의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우리나라 18대 대통령 선거는 여야 주요 후보자의 치열한 선거 운동을 거쳤고, 개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를 득표하여 문재인 민주당 후보(48.0% 득표)를 3.6%차이로 앞서며 당선됐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판명된 배경에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인품 정보를 제공한 주요 신문의 보도 즉 정치 평론이 영향을 주었다는 가정을 설정하여 주요 신문의 선거 보도의 특성을 비롯해 보수적 및 진보적 논조를 전개하는 신문의 정치 평론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신문의 선거 보도는 오랫동안 지적받아온 부정적 선거 보도 관행인 정책(공약) 보도와 검증의 부족을 비롯해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 중심의 부도, 투표 직전 의혹에 대한 집중 보도로 유권자의 혼란과 정치적 염증 초래, 신문의 논조와 연관된 특정 후보자 편향 보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감정적 공세 보도(색깔론과 북풍물이 보도), 후보자의 지지율에 초점을 맞춘 경마식 판세 보도, 지역감정 조장 보도 등이 이번 대선 보도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선거 직후에 제기된 공약 불이행 조장 기사는 후보자간 지지율과 득표

율이 비교적 박빙인 상태에서 당선자가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장한데 대해 보수적 논조의 신문이 이행 유보와 연기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등장한 보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 논조의 신문과 진보적 논조의 신문은 이러한 보도 경향으로부터 모두 근본적으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보수적 논조의 신문이 잘못된 선거 보도 행태를 상당한 정도로 지적받는데 비해 진보적 논조의 신문은 비교적 약한 수준에서, 옴부즈만의 활발한 운영 등을 통해 자기교정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보수적 논조의 신문에 해당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종편 운영을 통해 유사한 논조가 종편을 통해 비슷하게 반복, 확산됐고, 신문과 종편 양 채널의 유사한 논조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문제별 분석 과정에서 독자적 자료 분석이 아닌 다른 연구의 결과와 자료를 활용하거나 다시 분석했고, 보수적 논조 신문과 진보적 논조 신문의 정치 평론 분석에서 서로 다른 분석 방식을 적용한데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관성과 일반화 가능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는 18대 대선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분석을 실시해 연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 ▶ Submitted : 2013. Nov. 06.
- ▶ Reviewed : 2013. Nov. 12.
- ▶ Accepted : 2013. Nov. 15.

References

- Ansolabehere S., & Iyengar, S. 1995. *Going Negative: How Political Advertisement Shrink and Polarize the Electorate*. New York: Free Press.
- Baek, Seon Gi. 1993. "14dae Daetongryeong Seongeoui Bangsongbodo Bunseok."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Seminar & Bogoseo*.

-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nett, W. L. 2000. "Introduction: Communication and Civic Engagement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olitical Communications* 17.
- Bennett, W. L. 2007. "Civic Learning in Changing Democracies: Challenges for Citizenship and Civic Education." In Peter Dahlgren, (ed.) *Young Citizens and New Media: Learning for Democracy*. New York: Routledge.
- Benoit, W. L., Webber, D., and Berman, J. 1998. "Effects of Ideology and Presidential Debate Watching and Ideology on Attitudes and Knowledge." *Argumentation and Advocacy* 34.
- Best, S. J., and Hubbard, C. 1999. "Maximizing 'Minimal Effects': The Impact of Early Primary Season Debates on Voter Preference."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7.
- Blumer, J. G., and Gurevitch, M. 1995. *The Crisis of Public Communications*. London: Routledge.
- Bohman, J. 1996. *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 Boyd, D. 2008. "Can Social Network Sites Enable Political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Politics* Vol. 4 No. 2.
- Boyd, D & Ellison, N.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Vol.13.
- Brynin, Malcolm, and Newton, Kenneth. 2003. "The National Press and Voting Turnout: British General Elections of 1992 and 1997." *Political Communications* 20.
- Chang, Dun Jin. 2012. "2012Nyeon Social-Seongeo: Bunscoekgwa Jeonmang." *Kwanhunjournal* 122.
- Chang, Ho Soon. 2001. *Jakeun Eonroni Huimangida*. Gyeonggi: Kaemagowon.
- Crozier, M., Huntington, S., and Watanuki, J. 1975. *The Crisis of Democracy: Report on the Governability of Democracies to the Trilateral Commiss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Dahlgren, P. 1995.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Citizenship, Democracy and the Media*. London: Sage.

- _____. 2007. "Civic Participation and Practices: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In Nico Carpentier et al. (eds.) *Researching Media, Democracy and Participation*. Tartu University Press.
- Dalton, R. J. 1996. *Citizen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hatham, NJ: Chatham House.
- Dautrich, K., and Hartley, T. H. 1999. *How the News Media Fail American Voters: Causes, Consequences, and Remed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omahidi, E. 2011. "Campaign Communication in Social Network Sites." 2011 Annual Meeting.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Edelman, M. 1988.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ntman, R. M. 1989. *Democracy Without Citizens: Media and the Decay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llows, J. 1997. *Breaking the News: How the Media Undermine American Democracy*. New York: Vintage.
- Franklin, B. 1994. *Packaging Politics: Political Communication in Britain's Media Democracy*. London: Edward Arnold.
- Gawiser, S. R and Witt, G. E. 1994. "Journalist's guide to public opinion polls. Praeger Publisher." The Korean Press Institute. trans. 1995. "Yeoronjosa-bodowa Silje". The Korean Press Institute.
- Hall, C. 2005. *The Trouble with Passion: Political Theory Beyond the Reign of Reason*. New York: Routledge.
- Hallin, D. C. 1997. "Sound Bite News.: Television Coverage of Elections." In S. Iyengar & R. Reeves (Eds.) *Do the Media Govern? Politicians, Voters, and Reporters in America*. Thousand Oaks, CA: Sage.
- Hfkais blog. 2012. "4.11 Chondseon Kkeutnanji Han Dal, Uri Jiyeokgu Hubodeului SNS Hwalyonge Daehayeo."
- Ibrahim, Y. 2008. "The New Risk Communities: Social Networking Sites and Risk."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 Cultural Politics* Vol. 4 Issue 2.
- Inglehart, R. J.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ung, Chang Hoon. 2011. "Bangsong-tongsin-simui-wiwonhoe SNS Tongje Sasilinga?" *Jaegeonchuk-jaegaebal-news*. <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mustcan>
- Jung, Nak Won. 2013. "18dae Dactongryeong Seongeo Sinmunbodo Bunseok." *Simmungwa Bangsong*, 505.
- Kang, Myung-Koo. and Kim, Hyo-Myung. 1998. *Hanguk-simmun Saseolui Chongchejeok Bunseok*. The Korean Press Institute.
- KBS Bangsong-munwha-yeonguso. 2012. *Gongjeong-seong-iran Mueosinga*.
- Kerbel, M. 1995. *Remote and Controlled: Media Politics in a Cynical Age*. Boulder, CO: Westview.
- Kim, Yeo-Ra. 2012. "4.11 Chongseonkwa Seongeo-bangsongui Yeokhal". *Issue & Nonjeom*, 422.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Kim, Jang-Hyeon. 2012. "Social Media Seongeo Munhwawa Eonrom Daeeng Bangan". *Simmungwa Bangsong*, 2012.3.
- Kovach, Bill & Rosentiel, Tom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Lee, Jong Uk. trans. 2003. 『Journalismui Gibonyoso』. Korea Press Foundation.
- Kwon, Hyun-Nam. 1997. *Hanguk-eonrongwa Seongeobodo*. Seoul: Na-nam.
- _____. 1999. "A Study on the Television's Coverage of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3(5).
- Ku, Gyo-Tae. 2008. "A Study of Critical Issues in the '07 Presidential Campaig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8(1).
- Lang, K. and Lang, G. 1968. *Politics and Television*. Chicago: Quadrangle.
- Lasch, C. 1990. Stop Making Sense, *News Inc* 2(December).
- Lee Hyo Seong. 2003. *Maechse-seongeo*. Seoul: Hanul Publishing Group.
- Lee, Jin Ro 2008. "18dae Daeseongwa Mediasongeoui Banghyang". 2008 Chongseon-bodo Pyeonga-toronhwoi. 2008 Busan-chongseon-media-yeondaek.
- Lee Jin Ro. 2010. "Olbareun Jiyeok Seongeomunhwa Hyeongseonggwa Jiyeokbangsong". 6.2 Jibangseongeoowa Jiyeogbangsongui Yeokhal Semina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 Lemert, J. B. 1993. "Do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Help Inform Voter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7.
- McChesney, Robert 1999. *Rich Media, Poor Democracy: Communication Politics in Dubious Time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oon, Sung-Chul, and Yang Mon-Hee. 2009. "Daetongryeong Seongeo Toron Program Sicheongi Jeongchihyoneung-gamgwa Jeongchi Chamyeoe Michineun Yeonhyang Yeongu."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3(1).
- Mutz, D. 1998. *Im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m, Ji-Na, and Choi, Yun-Jung. 1999. "Hangukgwa Miguk TVnewsui Daeseonbodo Bigyo: Sin Danwiui Hyeongsikgwa Naeyongui Gongjeongseongeul Jungsimeuro."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4). Korean
- Negrin, R. 1994. *Politics and the Mass Media in Britain*. London Routledge.
- Newton, K. 1999. "Mass media effect: Mobilisation or media malai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 Noelle-Neumann, E. 1974.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4.
- Nordenstreng, K. 2007. "‘Four Theories of the Press’ reconsidered." In Nico Carpentier et al. (eds.) *Researching Media, Democracy and Participation*. Tartu University Press.
- Norris, P. 1996. Does Television Erode Social Capital? A Reply to Putnam. *Political Studies* 29.
- _____. 2000. *A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hmynews*. 22 April 2013. "Jeohakryeok-Blue-colour-Jubu-5060, Jongpyeon Baram Geosedda".
- Park, Sung Hee. 2009. "Jae 17dae Hubo Habdong Toron Eoneonetwork Bunseok."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45.
- Patterson, T. E. 1980. *The Mass Media Election: How Americans Choose Their President*. New York: Praeger.
- _____. 1994. *Out of Order*. New York: Vintage Books.
- Patterson, T. E., and McClure, R. D. 1976. *The Unseeing Eye: The Myth of Television Power in National Elections*. New York: Putnam.
- Pinkleton, B. E., and Austin, E. W. 2001. "Individual Motivations, Perceived Media Importance, and Political Disaffec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8.
- Postman, N. 1987.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 of Show Business*. London: Methuen.
- Postman, N., and Powers, S. 1992. *How to Watch TV News*. New York: Penguin Books.
- Putnam, R. 1995a.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 _____. 1995b.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on America.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28. No.4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anney, A. 1983. *Channels of Power: The Impact of Television on American Politics*. New York: Basic Books.
- Rhee, Jun Woong. 2002. "Seongeo-yeoron-josa Bangbeop mit Unyong". *Kwanhunjournl* 83.
- Robinson, M. J. 1975. "American Political Legitimacy in an Era of Electronic Journalism: Reflections on the Evening News." In D. Carter & R. Adler (Eds.), *Television as a Social Force: New Approaches to TV Criticism*. New York: Praeger.
- _____. 1976. "Public Affairs Television and the Growth of Political Malaise: 'The case of selling Pentag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
- Schaffner, Brian, and Sellers, Patrick 2003.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Local Congressional News Coverage." *Political Communications*, 20.
- Schudson, M. 1995. *The Power of the New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lz, C. 1998. "Media Change and the Political Effects of Television: Americanization of Political Culture." *Political Communications*, 23.
- Shin, Tae Sub. 2013. "'Seongeobodo' anibnida, 'Bulbeobseon-geoundong' ibnida", *Simingwa Eonwon*, 100. Yang Seung Chan. 2003. "16dae Daetongryeong-seongeowa Media". *Daetongryeong-seongeowa Media*. Korea Press Foundation.
- Son, Young Jun. 2012. "Smart Media Hwangyeong SNSwa Jeontongmaecheui Jonjaeyangsik Bigyo." *Kwanhunjournl*, 122.
- The Kyungbyang Shinmun*. 22. Oct. 2012. 10. 22. "[Ombudsman]Huboja Ib Uijon 'Inyong Journalism Gman'."

- _____. 29. Oct. 2012. “[Ombudsman] Daeseon Hubo Jeongchaek Simdo Ikke Geomjeunghaeya.”
- _____. 05. Nov. 2012. “[Ombudsman] ‘Simin Yeokryang’ Saljiuneun Seongeobodoga Pilyohada.”
- _____. 12. Dec. 2012. “[Ombudsman] ‘Tupyoyul Nopiri’ Guchejeok Jeaneul.”
- _____. 19. Nov. 2012. “[Ombudsman] ‘Nodong Eobneun Daeseon’ Gihoek, Haebeob Jesi Miheup.”
- _____. 26. Nov. 2012. “[Ombudsman] Ugwonja ‘Jeongchi Sikgyeon’e Doumi Doelmanhan Issuewa Jeongchaek Bunseok-Haeseol Gisa Saengsanggeul.”
- _____. 03. Dec. 2012. “[Ombudsman] Ahn, Cheol-suboda Jijijadeul Yogue Chojeomeul.”
- _____. 10. Dec. 2012. “[Ombudsman] Churon Malgo Geungeo Hwakbo Dwie Bodoreul.”
- _____. 24. Dec. 2012. “[Ombudsman] Eonron, Daehwawa Chiyuui Maehaece Doegil.”
- _____. 17. Dec. 2012. “[Ombudsman] ‘Hontak Seonge’ Bodo Naengjeonghan Siseon Pilyo .”
- Utz, S. 2009. “The (Potential) Benefits of Campaigning via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4. Issue 2.
- Wu, J. 2009. “Facebook Politics: An Exploratory Study of American Youth's Political Engagement During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2009 Annual Meeting.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Yawn M. et al 1988. “How a Presidential Primary Debate Changed Attitudes of Audience Members.” *Pol Behav*, 20.
- Yoon, Young Chul. 2007. “Kukminui Seontack, Seongeobangsong Eoddeoke hal keosinga?” *Monthly Korea Forum*, 219.
- Yoon, Ho Jin. 2007. “2007 Daetongryeongseongeo Bangsongbodoui Juyo Jaengjeongwa Jedojeok Gaeseonbangan”. *Program/Text*, 16.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 2012 Daeseonbodo Mineonryeon Monitordan. 2013. “Jojungdong Choiakui Seongeobodoreul Gobalhpnida.” *Simingwa Eonron*, 100.